

스크린 속 생생한 감동

광주문화재단, '삭은스크린' 진행
발레 '라 바야데르' 등 6개 작품
20일 '스피릿 오브 베토벤' 첫 공연
코리안 심포니·김다솔·임현정 출연



김다솔

김선욱

광주문화재단이 '삭은스크린(SAC on Screen)' 올해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삭은스크린'은 예술의전당 우수공연 작품을 영상으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광주에서는 재단이 지난 2016년부터 진행해 오고 있다.

재단은 올해도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에서 '삭은스크린'을 진행, 9월까지 클래식, 연극, 발레, 현대무용 등 약 6개 작품을 상연한다.

'삭은스크린'은 10개가 넘는 카메라가 여러 각도에서 잡아내는 역동적인 화면과 UHD 고화질 영상, 5.1채널 입체 사운드 음향 등이 어우러져 무대의 세심한 부분까지 생동감 있게 전한다. 특히 객석에서는 볼 수 없는 아티스트의 생생한 표정과 몸짓을 관객들에게 감동적으로 전달하며 고음질의 음향은 현장의 생생함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

올해 '삭은스크린' 첫 작품은 '스피릿 오브 베토벤(Spirit of Beethoven)'이다. 지난 2014년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 코리안심포니 제193회 정기연주회 실황으로 20일 오후 7시 30분에 만날 수 있다.

지휘자 임현정이 무대에 올라 베토벤의 작품을 선보였으며 당시 차세대 피아니스트로 촉망받던 김다솔과의 첫 번째 만남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제5번 '황제'를 김다솔 특유의 독창적이고 섬세한 피아노 연주로 선보이며 베토벤 교향곡 제5번 '운명'도 들려준다.

다음 상연작은 '김선욱 피아노 리사이틀 I·II'로 오는 6월 3일 열린다. 이 공연은 2016년 7월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 공연으로 모차르트 '현상곡 4단조, K.397', 슈베르트 '피아노 소나타 18번 G장조 D.894 Op.78'을 연주한다

/전문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국립발레단 '라 바야데르'

전남도립국악단, 5·18 뮤비 '점아 점아 콩점아' 유튜브 공개

"우리의 오늘은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전남도립국악단(예술감독 류형선)이 5·18을 주제로 만든 뮤직비디오 '점아 점아 콩점아'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

작품은 전래동요 가락에 암울했던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깊이 있게 표현한 곡으로 5·18기념재단에서 제작한 기념 음반 '오월' 수록곡을 리메이크 했다. 노래 중간 삽입된 연주곡 '발자국'(작곡 류형선)은 죽은 딸의 발자국 소리와 딸을 빼앗아 간 근화 발자국을 소리 이미지로 대비시켰다.

또 80년 5월 이후 민주화를 이룬 지금에도 끝나지 않은 아픔을 어린 딸의 시선으로 담백하게 풀어냈으며 전남도립국악단 80명 단원들이 총출연해 전통예술의 결로 작품을 완성했다.

류형선 전남도립국악단 예술감독은 "뮤직비디오는 5·18민주화운동에 빛진 마음으로 불러낸 노래이며 마흔 해 누적된 빛을 겨우 한 바빔 값어치는 설렘으로 만든 행복한 결실이다"며 "5·18정신을 전통예술로서 함께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전문재 기자 ej6621@kwangju.co.kr

5·18 40주년 문화로 만나다



광주전남작가회의는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6월 30일까지 5·18민주묘지 일대와 민주열사 묘역에서 오월 역사와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결계사회전을 진행한다. (광주전남작가회의 제공)

문학기계 추모 물결... 그날을 되새기다

<9> 결계사회전·오월문학제

5·18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그날의 뜻을 기리는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문학기계에서도 결계 사회전, 오월문학제, 오월사적지 답사 등 추모행사를 연다.

먼저 오월정신을 기리는 전국 시인, 작가들의 결계 사회 200여 점이 국립 5·18민주묘지 일대와 민주열사 묘역에 걸려 전시 중이다.

광주전남작가회의는 광주 오월 역사와 정신을 계승하고 세대 간 오월 역사 인식 격차 해소, 오월정신의 문학적 형상화와 확산을 위해 결계사회전을 지난 15일부터 진행하고 있다.

오는 6월 30일까지 개최되는 결계사회전은 한국작가회의 소속 작가 300여명이 참여한다. 작가들은 결계사회전을 통해 묘역 참배객들에게 오월정신을 표현한 문학작품 향유 기회와 오월문학을 매개로 작가와 시민 간 연대의식 형성에 초점을 둔다

광주전남작가회의, 오월작품 향유

300여명 참여 민주묘지 일대 전시

는 방침이다.

"햇바늘 돋는 계절이다// 그해 봄/ 당신들이 고립되고 차단되어 외로운 섬이었을 때/ 함께 연루되지 못한 자책이 빛으로 남아/ 아직 갇지 못했다 / 말을 주워 삼키다보니/ 내 햇바닥엔 다시 상처만 가득하다// 진실과 정의를 봉쇄할 수 없으니/ 그것은 섬을 벗어나 하늘이 되고 바다가 되고/ 마침내 낮고 공명할 기준선이 된다..."

위 시는 2018년 5·18 문학상 본상을 수상한 이중형 시인의 '비망록' 일부본이다. 시집 '꽃보다 먼저 다녔던 이들을'을 펴낸 바 있는 시인은 이번 결계사회전을 통해 오월 정신을 당대 가치관으로 재해석해 역사적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오월문학제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시일을 늦춰 6월 20일 역사적 공간인 전일빌딩 245 다목적 강당에서 열린다.

오월문학 심포지엄(오후 2시)은 '광주오월문학의 문학사적 위상과 시대적 담론'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어진다. 임현영 민족문제연구소장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서울대 윤대석 교수와 카톨릭대 홍기돈 교수가 발제를 하며 안양대 맹문재 교수와 전남대 정민구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5·18문학상 시상식(오후 4시)도 열려 올해의 수상작('은주의 영화')인 공선욱 작가에게 상금 1000만원이 수여된다.

또 문화과 타 장르를 접목시킨 남도 문화예술 공연이 펼쳐지며 전국 지역 대표 시인의 시낭송 및 시노래 공연이 예정돼 있다. 상무대 영창, 505보안대, 민주열사 묘역 등을 둘러보는 오월사적지답사는 21일 오전 9시부터 진행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우리 생활 속 가까이 '한뼘 정원'

박인주 전, 21일까지 향담갤러리

'소박한 수목 정원으로 초대합니다.' 행담(杏堂)박인주 개인전이 21일까지 광주 예술의 거리 향담갤러리에서 열린다.

전시 주제는 '한뼘 정원'. 작가는 현장 사생을 나가 감동을 받았던 대자연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생활 속에 가까이 있는 '정원'으로 축색도 묘사한 작품 28점을 선보이고 있다.

그리 크지 않은 작품(25cmx30cm)에 담긴 자연은 다채로운 모습이다. 수양버들이 내려 앉은 연못이나, 돌담을 타고 피어 있는 다채로운 풀과 꽃들, 연일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가 들릴 것 같은 풍경, 운무의 아련함이 어우러진 숲, 나무 그늘 아래 놓인 탁자와 의자 등은 위로와 힐링을 전한다.

화려한 색감 대신 검은 먹의 농담과 번짐의 효과와 붓터치를 살려 수묵화 본연의 매력을 보여주는 작품들은 적절한 여백과 명암이 어우러지면서 독특한 공간감을 만들어낸다.

전시에서는 실내 낚시터에서 고기 잡는 손녀 모습, 스케치하는 작가들의 모습, 꽃그늘 아래서 놀고 있는 아이들 모습 등을 화사한 채색화로 담아낸 10점의 신공속화도 선보인다.

오랫동안 화가를 꿈꾸다 늦게이로 미술대학(호남대 미술학부)에서 공부한 박 작가는 광주대 평



'한뼘 정원'

생교육원에서 한국화 강사를 맡고 있으며 지금까지 3차례 개인전을 열었다.

현재 광주미협부회장, 토산사, 남도수묵회 회원 등으로 활동중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김향득 다큐사진작가와 함께하는 '5·18 사적지 공감투어'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사장 백수인)은 5·18 민주항쟁 40주년을 맞아 오는 23일 오전 10시, 네 번째 지역문화교류마당 '김향득 다큐사진작가와 함께하는 '5·18 사적지 공감투어'를 개최한다.

'5·18 사적지 공감투어'는 시민들과 함께 5·18 사적지를 둘러보며 오월 정신을 기억하고 5·18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을 수립하고자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구체적인 투어 코스는 화순 너릿재(화순사적), 주남마을 인근 민간인 학살지(사적14호), 광목간 민간인 학살지(사적15호), 들불야학 옛터(사적27호), 광주교도소(사적22호), 5·18민주묘지(사적24호)이다. 이번 공감투어는 김향득 다큐사진작가의 설명과 함께 이뤄지며 출발 전 '사진으로 보는 5·18 사적지' 강의를 통해 5·18 사적지에 대한 설명도 진행된다.

김 다큐사진작가는 1980년 5월 당시 고등학생으로 시민군에 참여했으며, 마지막까지 계엄군에 맞서 전남도청을 지켰다. 이후 5·18 사적지와 옛 전남도청 등을 꾸준히 사진으로 기록하며 5·18을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다.

모집인원은 선착순 15명이며 참가비는 1만원이다. 참여희망자는 21일까지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으로 접수하면 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

062 673 5858 (모발모발)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